

[전파자원] ITU-T SG13 RGM 회의 참가

1. 머리말

ITU-T SG13은 전기통신표준화총국(Telecommunications Sector Bureau) 산하 11개 연구반 (SG: Study Group)의 하나로서, 차세대통신망과 관련된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튀니지에서 열렸던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 Assembly) 2016 결과, IMT-2020 분야가 새로운 연구주제로 추가되어 이번 회기부터의 정식 명칭은 “IMT-2020, 클라우드 컴퓨팅 및 신뢰성 통신 인프라 중심의 미래 통신망”으로 명명되었다. 이번 회의는 7월3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TTA, KT, ETRI, KAIST 등에서 총 26명이 참가하였고, IMT-2020, 클라우드 컴퓨팅, 신뢰성 통신 인프라 전 분야에 걸쳐 기고서를 제출하였다.

2. 주요 회의 내용

IMT-2020 포커스 그룹(FG: Focus Group)이 '15년 6월 SG13총회를 통해서 신설되어 '16년 12월까지 IMT-2020 (5G) 표준에 대한 Gap 분석 및 사전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본 포커스 그룹의 결과를 바탕으로 IMT-2020 표준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SG13 정기회의에서의 구조 조정 논의를 통해 WP1내에 5개의 실무반(Question)을 신설 및 해당 실무반의 ToR (Terms of Reference) 변경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RGM (Rapporteur Group Meeting)으로, FG에서 이관되었던 표준문서의 추가 개발 및 개선/보완을 통해 3건의 잠정권고안에 대한 Consent가 완료되었다.

해당 표준은 각각 ITU-T 권고안 Y.3100으로 명명될 IMT-2020 용어 및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for IMT-2020 network, 에디터: ETRI 강신각), Y.3110으로 배정된 IMT-2020 통신망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요구사항 (IMT-2020 Network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Requirements, 에디터: KT 강상우), Y.3111인 IMT-2020 통신망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 (IMT-2020 Network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Framework, 에디터: ETRI 최태상) 권고안이다.

이 3건의 표준 승인(consent)은 모두 한국에서 에디터를 맡고 개발해온 표준으로, ITU-T SG13에서 지난 3월에 창설된 IMT-2020 워킹파티 (의장; KT 김형수)에서 한국이 그 동안 보여준 리더십과 기술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3. 맺음말

ITU-T SG13은 워킹 파티 공동의장 2명 및 산하 7개 라포터십을 아국이 보유하고 있는, 아국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SG이다. 이는 IMT-2020 포커스 그룹의 설립과 관련 표준개발의 리더십이 이어진 성과이자, 그간 제13연구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트러스트 등의 주요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여와 활발한 활동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한국은 IMT-2020 용어, 요구사항 및 구조 이슈를 포함하여 IMT-2020에서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QoS 전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가 골고루 분산되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5G관련 기술의 국가 주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 합동의 협업 강화가 요구된다.

국제표준화 기구들의 IMT-2020/5G 관련 가장 핫한 이슈인 Network Slicing과 관련하여, 타 SDO 및 제외국의 표준화가 Network Slicing에 대한 구조/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Slice Life Cycle Management관련 권고안을 Consent시킴으로써, 선도적 기술개발 국가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또한 향후 QoS 관리를 위한 표준을 추가/선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선도/주도국의 위치를 지속 확보하고자 한다.

IMT-2020의 핫 이슈인 Network Slicing에 대한 선제적 표준화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시스템 개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SG13 회의는 2017년 11월6일에서 1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형수 (KT 팀장, hans9@kt.com)